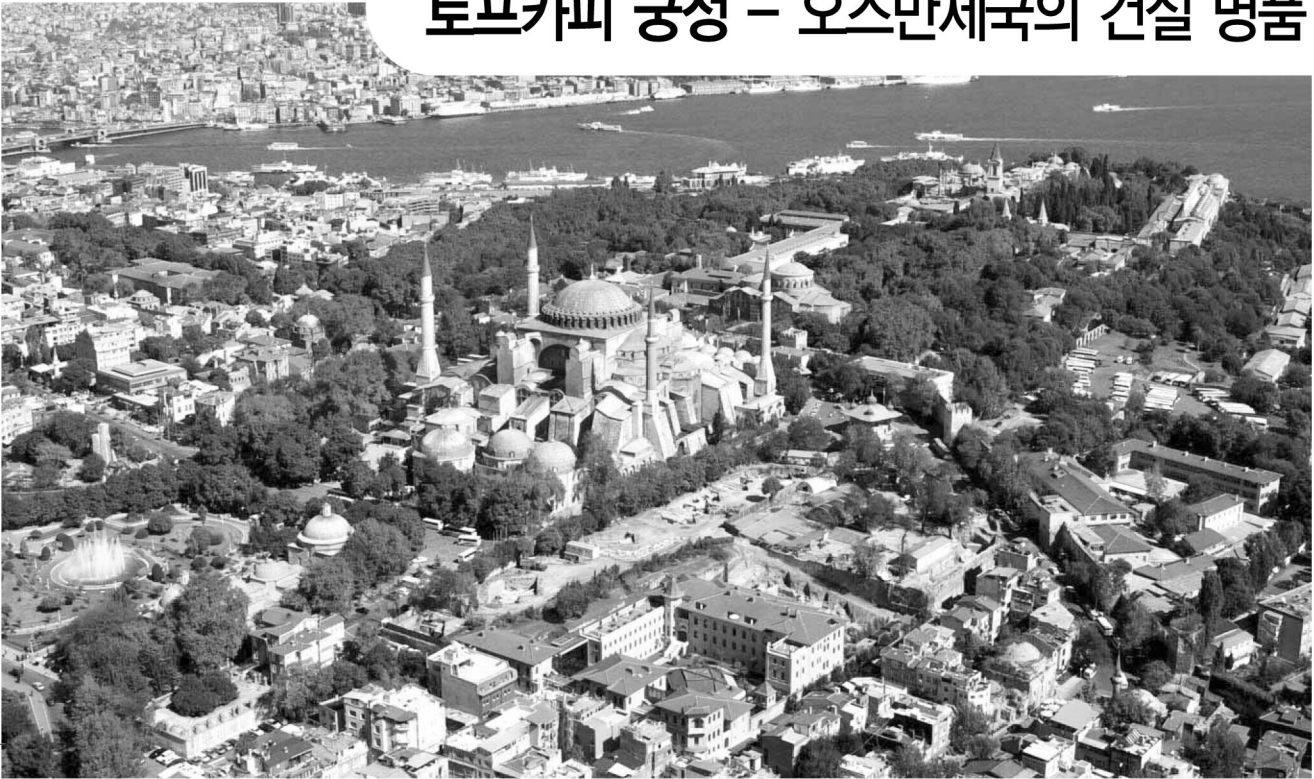


## 토프카피 궁정 - 오스만제국의 건설 명품



토프카피 궁정

이복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bnlee@cerik.re.kr

### 토프카피 궁정과 이스탄불, 그리고 터키

터키가 아시아인지 혹은 유럽인지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터키가 아시아인지 유럽인지를 혼돈하게 만드는 중심에는 이스탄불이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스탄불은 터키 면적의 9% 내외에 불과하지만 지구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스탄불 = 터키'로 각인되어 있다. 9%가 90%를 지배하는 형국이다. 이스탄불은 로마, 비잔틴, 오스만투르크 등 3대 제국의 수도였다. 인류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3대 제국이 건재했던 기간은 통틀어 1,600여 년이었고 이스탄불은 122명의

왕들이 거주했던 수도였다. 이러한 이스탄불의 역사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오스만제국의 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한다. 반경 1km 이내에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3대륙의 문화 유적과 기독교와 그리스정교, 이슬람 등 3개 종교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리차드 카벤디쉬와 코이치로 마츠무라가 공동 집필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 100」에 올라 있는 여러 유적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도 이스탄불이다. 이 유적들 가운데서도 주목받는 곳은 토프카피 궁정이다. 토프카피 궁정은 오스만

제국 500년의 역사, 36명의 술탄(이슬람 황제) 중에서 388년 동안 18명이 거주했던 왕궁이다. 400년에 걸쳐 신축과 증축, 그리고 개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프카피 궁정이란 명칭은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다. 궁정 출입문에 토프(터키어로 대포)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토프+카피(터키어로 문)'의 합성어로 재명명되었다고 한다.

### 토프카피 궁정 개요

궁정은 18명의 술탄이 거주했던 탓에 제국의 힘에 따라 신축과 증축, 그리고 개축 등이 반복됨으로써 독특한 문화를 인류에게 선보이고 있다.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힘이 절정에 달했던 1640년경에는 궁정 내 인구가 4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당연히 궁정의 면적이 70만㎡(약 21만 2,000평)에 이를 정도로 넓었다. 궁정의 외벽 길이만도 5km이며 당시에는 6개의 정문이 있었다고 한다.

토프카피 궁정은 모두 4개 궁정(정원을 낀 궁궐)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정들은 외관보다 내부가 더 화려하고 섬세하며 여전히 과거의 정치, 사회,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은 스스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전쟁을 통해 강대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쟁과 정복이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는 로마와도 같다. 전쟁과 정복이라는 키워드는 토프카피 궁정의 건축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부상자를 양산하는 전쟁으로 인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궁정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쟁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한 상징물,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신변 보호 안전 장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화려한 장식 등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이 토프카피 궁정이다.

토프카피 궁정이 위치해 있는 곳은 유럽과 아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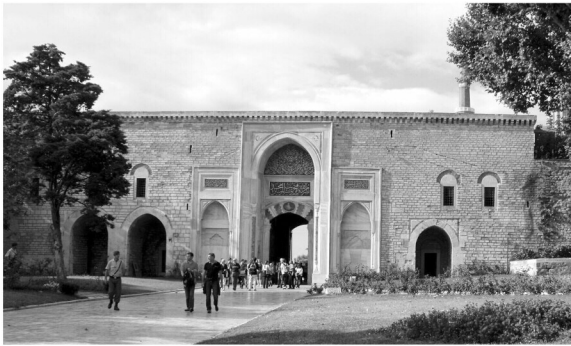
리카 사이의 지중해, 이스탄불로 접근하는 마르마라해, 그리고 흑해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보스포르스해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궁정은 이스탄불의 북쪽 지역인 유럽의 구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슬람을 대표하는 사원 블루모스크, 비잔틴제국이 즐겼던 전차 경기장인 히포드롬,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겹친 아야소피아 성당(현재는 박물관)을 보고나면 자연스럽게 토프카피 궁정의 제1관문 앞에 서게 된다. 이스탄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처럼 토프카피 궁정의 건축 양식도 다양하다. 그리스 신전에서 볼 수 있는 열주, 로마 건축 양식, 독특한 비잔틴 건축 양식과 이슬람식 모스크 양식 등이 여행객들에게 혼란을 준다. 여행객들이 혼돈된 문화의 질서를 잡아서 봐야 할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무질서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 혼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토프카피 궁정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토프카피 궁정은 4곳인데 궁정 안으로 들어서면 의료 시설과 넓은 정원, 그리고 미로 같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 탁 트인 것 같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직선화되어 있지 않은 길, 궁정 출입문 곳곳에 남아 있는 검색 흔적 등은 통치자의 신변 보호 장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 제1관문 - 제국의 문

'황제의 문' 혹은 '술탄의 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토프카피 궁정의 출입 관문 역할을 한다. 술탄의 취향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바뀌기도 했다. 집안의 대문이기도 하지만 궁정의 크기에 비해 문은 비좁아서 단 한 대의 마차만이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좁다. 옛날에는 말에 탄 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74



제1관문인 제국의 문.



제2관문인 경의의 문.



제3관문인 행복의 문.

위해 머리 높이에 쇠고리가 쳐져 있었다고 한다. 제1궁정은 일반 백성도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 공간이다. 당시 왕실 관리나 시종들은 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료 시설, 제빵소, 화폐 제작소와 성당 등이 남아 있다. 이 성당은 비잔틴제국 시대의 성당으로 오스만 시대에는 전리품과 무기 저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궁정은 이슬람 혹은 유목민의 특성이 스며든 원형 텐트(터키어로 키오스크) 모양을 이루고 있다. 개방된 공간이고 정원에는 아메드3세 분수가 있다. 분수는 장식이 아닌 제2궁정 출입 대기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수에서 세수와 몸단장을 한 후 출입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무언의 압력과 감시를 받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제2관문 - 경의의 문 혹은 예절의 문**

제2궁정은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공간이다. 당연히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정면에서 보면 좌우에 두 개의 탑이 있는데 왼쪽 탑은 범죄를 저지른 고위 관리를 투옥시키던 감옥이다.

위압감이 가득한 이 궁정은 술탄의 평의원(현 국무위원)들이 매주 모여 국정을 논의했던 장소였다. 국가 행정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사용된 방 400여 개가 있었고 또 주방도 있다.

제2궁정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며, 아름다운 정원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을 모방해서 건설했던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원이다. 한편으로 제2궁정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모든 남자들이 머무는 일종의 울타리(우리)로 사생활을 상시 감시받아야 했던 어두운 역사의 주거 공간이기도 하다. 전쟁과 정복이 일상인 군주 자리를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제3관문 - 행복의 문 혹은 지복의 문**

4개 궁정 중 실내 공간이 가장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제3궁정은 술탄이 외국 사신이나 총리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을 접견하는 '황제 알현실'이다. 천장과 벽면은 화려한 타일로 치장되어 있다.

바닥은 금과 진주를 박은 최고급 양탄자가 깔려 있어 당시 오스만제국 황제의 힘과 권위를 느낄 수 있다. 황제가 앉던 의자는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 옆에는 수도꼭지가 있는 세면대가 있다. 손을 씻기 위한 목적보다 황제가 외부인과 접견할 때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도청 방지 장치로 사용되었다.

제3궁정은 총 8만 6,000개 이상의 진기한 보물을 모아놓은 곳이다. 현재는 오스만제국의 술탄들이 누렸던 부의 상징의 일부만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경이롭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크기인 85캐럿의 다이아몬드도 보관되어 있다. 이 다이아의 별칭이 '스폰장수다이아몬드'다. 현재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지만 당시 어부가 손가락 3개와 맞바꾼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또 궁정 내부에 보관된 보물 단검(이슬람식 내부 공간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음)에는 세계 최대의 에메랄드가 박혀 있다. 남성 금지구역인 하렘도 있다. 250여 개의 방이 있는 하렘에는 한 때 1,000명의 여성들이 기거했다고 한다. 하렘에 있는 방은 다양한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 술탄은 맘에 드는 여성의 방에 비밀리에 접근했다고 한다. 제3궁정 안에는 술탄 마호메트3세의 왕실 도서관이 별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제4궁정 - 왕가

토프카피 궁정 중 가장 아름다운 키오스크(현관) 두 채가 있다. 제4궁정은 왕과 가족이 거주하던 왕가(王家)다. 다른 궁정은 출입이 까다로운데 정작 황제가 머물던 곳에는 문도 허술하고 보안 검색을 한 흔적도 안 보인다. 이유는 왕과 가족, 그리고 허가받은 고위직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

이다. 궁정 안에는 오스만제국을 끌고 갈 리더 혹은 지휘자 양성 학교(엔테룬)도 있다. 체력과 기마술, 무술을 익히고 터키어, 아랍어는 물론 역사와 수학을 학습하고 궁중 예절을 익히는 곳이었으며, 졸업생은 당연히 문·무·예를 겸비한 재원이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화랑 양성소와 비슷하다. 졸업생들은 궁정 경비에서부터 출발하여 평가에 따라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 왕과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인 제4궁정은 실내 장식보다는 실내서 밖을 보는 경치가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이다. 마르마라해와 보스포르스해협을 넘나드는 다양한 선박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제4궁정의 앞은 제3궁정이 보호하고 뒤는 성벽이 절벽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 침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곳이다. 다른 궁정과 달리 궁정 내부 정원이 작은 것도 특징이다.

#### 19세기 중반까지 정치의 중심

토프카피 궁정의 독특한 궁정 건축 문화는 국가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신변 보호, 이슬람 종교를 포교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감 등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스탄불이라는 지명도 1453년 술탄 마호메트2세가 콘스탄티노플(그리스 정교)을 정복한 후 이슬람 교세 번승을 위해 개칭했다고 했다. 그 후 1472년 이스탄불은 오스만제국의 수도로 지명되었다. 토프카피 궁정은 오스만제국이 힘을 잃게 되는 1856년 전까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후 유럽세가 지배하면서 돌마바흐체 궁정이 건설되고 토프카피는 그 위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건축 양식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토프카피 궁정은 순수 유럽형 건축 양식의 돌마바흐체와 모한 대조를 이루며 아직까지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CERIK